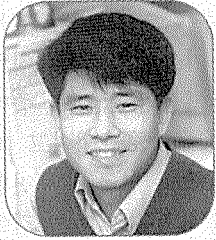


2000 동계 CES 출품 동향



김순기 기자
(전자신문 생활전자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인 「2000 동계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디지털기기가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시회였다.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정에서는 물론 이동중이나 집밖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들을 대거 선보인 것이다. 새천년의 화두는 역시 [디지털]이라는 사실을 재삼 실감케했다.

이번 CES에 출품된 제품 가운데는 디지털TV 및 DVD플레이어와 홈씨어터를 중심으로한 오디오기기 등의 AV기기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전제품의 디지털화에 가속이 붙으면서 컴퓨터분야 및 통신분야와 가전분야 등 그동안 뚜렷하게 구분됐던 산업간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서로의 영역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이들 분야가 결국은 서로의 장점을 도입하면서 복합제품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예를 가장 잘 나타낸 제품이 바로 웹TV다. 그동안 TV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것만을 받아볼 수 있었으나 TV가 인터넷과 만나면서 이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을 골라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집안에 앉아서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쇼프로나 퀴즈프로 등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또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인터넷 사이트도 리모콘으로 채널 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파나소닉·필립스 등은 TV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이 디지털화되면서 가져다줄 수 있는 모든 변화를 디지털가정이라는 무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Home & On-The-Go Avenue]라는 이름을 붙인 전시장을 마련,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으로 연결한 홈네트워킹의 진수를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시장을 거실·서재·주방·침실·차고 등으로 꾸미고 각 공간마다 놓여있는 PC와 가전제품들을 네트워크로 연결, 전화로 E메일을



받고 TV로 채팅을 하며 방 안에서 부엌의 가전기기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현실로 그렸다.

또한 필립스는 [심플 리빙@스마트 홈]이라는 주제로 디지털가정의 편리함을 뮤지컬 형태로 연출, 주방 및 거실, 침실과 공부방 등에 설치된 가전제품을 인터넷에 접속시키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제품들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재미있게 표현해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이번 전시회의 또다른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즐길 수 있는 휴대형 인터넷 오디오가 대거 출품됐다는 점이다. 물론 MP3를 출품한 업체들은 대부분이 국내 업체이거나 국내업체들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출품한 업체들이었다. 하지만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필립스, 산요 등 세계적인 가전업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MP3플레이어를 선보이며 휴대형 인터넷오디오 사업 참여를 선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 시대가 본격 개막됐음을 실감케 했다.

이번 전시회에 MP3관이 별도로 마련된 것도 이같은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봇분장을 한 거인이 춤을 추며 관람객 유치에 나선 디지털할리우드관과 Aeon, 감라, 픽세라, 캘리포니아전자 등이 비디오와 전자영상 및 프레젠테이션 장비 등은 물론 디지털카메라와 플래시카드, 스캐너, OCR, 모니터, 프린터 등을 전시하면서 즉석에서 촬영한 사진을 T셔츠에 새겨주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 디지털이미징관도 나름대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제품 동향

■ AV기기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참가한 삼성전자와 LG전자·대우전자를 비롯해 소니·필립스·파나소닉·JVC 등 세계 주요 가전 업체들이 HDTV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TV를 선보였다.

또한 VCR과 CD플레이어에 비해 엄청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DVD플레이어를 출품한 업체도 줄잡아 100여개사가 넘었다.

도시바 등 가전업체는 DVD 플레이어와 함께 대형 스크린과 고음질 스피커 등 홈시어터 시스템을 갖춘 전시장을 꾸며 DVD가 단지 고화질 차원을 넘어 가정의 멀티미디어 체험을 한차원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야마하는 [디지털 홀씨어터]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실시했으며 소니 등 2개사는 DVD플레이어와

대형 LCD화면을 마치 초소형 노트북컴퓨터처럼 구성해 어느곳에서든 DVD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 5인치 및 7인치 크기의 휴대형 DVD플레이어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DVD 및 오디오는 대부분이 사운드를 서브우퍼 외에 전면과 후면 좌우에 설치된 4개의 스피커로 분할해주는 4.1채널 제품보다 입체감을 한단계 높인 5.1채널 제품이었다. 5.1채널은 천정에도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입체음향의 웅장함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오디오시스템이 5.1채널 제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JVC의 경우는 획기적인 디자인의 콤팩트 컴포넌트 시스템을 들고나와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 휴대형 디지털 기기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내장한 초소형의 휴대형 디지털 기기도 다수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삼성전자는 미국현지법인명으로 참가하기는 했지만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미팅룸에 전시장을 마

런, 플래시메모리를 내장하거나 스마트미디어를 착탈식으로 채용해 기기간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 및 마이마이킹, 캠코더, 포토앨범, PC 등 다양한 퍼스널 멀티미디어 기기를 전시,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파나소닉은 SD 메모리 카드를 탑재한 웨어러블 캠코더를 비롯해 핸드스캐너, 펜던트 형태의 디지털스틸 카메라, 초슬림형의 노트북 PC, 카오디오시스템, 휴대형 DVC 플레이어, 팩스, 멀티뷰어, 마이크로컴포넌트 시스템에서, 시계형태의 뮤직플레이어 등의 휴대형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전자레인지에 이르기까지 무려 16~17가지 종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니도 메모리스틱을 내장한 MP3플레이어 및 초슬림형 노트북PC, 디지털 포토프린터, 사이버프레임, 디지털 핸디 캠코더, 퍼스널 네트워크 플레이어 등을 전시했다. 이밖에 파이어니어는 MP3 플레이어를 비롯 메모리오디오, 셀프시스템, 휴대형 플레이어 등을 선보였으며 사프도 메모리스틱을 채택한 MP3플레이어인 「솔리드 스테이트 오디오」를 출품했다.

■ 인터넷폰

인터넷과 전화기를 결합한 복합제품도 상당수 선보였다.

싱가폴의 RFC그룹은 PC에 연결해 E메일은 물론 보이스 메일과 메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900MHz 디지털폰을 출품했으며 PC와 이퍼는 LCD 스크린을 장착해 각종 기능과 메뉴를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E핸드셋을 선보였다. 이 회사는 내달중에 이 제품을 핸드셋과 베이 및 차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249달러대의 가격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파나소닉은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 컬러스크린을 갖춘 웹폰을 선보였으며 사이니온(Cygnion)과 인포기어 등도 E메일과 보이스 메일이 가능한 2.4GHz 대역의 인터넷폰을 전시했다.

■ 기타 제품

이밖에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휴대단말기(PDA) △10여장에 이르는 각종 신용카드를 하나의 카드형 인터넷 접속기로 통합한 전자신분증 겸용 E-머니 △사진을 찍자마자 곧바로 웹에 올릴 수 있는 무선통신 가능형 웹카메라 △가정에 비치된 전자제품을 원격조종할 수 있고 도로지도 안내까지 갖춘 리모콘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며 위치와 거리를 알려주는 휴대용 지도 정보장치 △아이들 신발에 붙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 미야 방지용 전자꼬리표 △화장하며 데이터 수신과 인터넷이 가능한 인터넷 메이크업 팩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춘 ES스위스칼 △스목형 디지털 카메라 및 MP3플레이어 등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묶어둔 새로운 제품이었다.

기술 동향

■ 홈네트워킹

가정내의 모든 정보기기와 오락기기 및 가전제품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모든 기기를 원격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안내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환경은 바로 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홈네트워킹 기술로 가능해지고 있다.

홈 네트워크는 PC에서부터 TV, 디지털 카메라, 냉장고 등 모든 가전제품을 무선 또는 유선으로 연결시켜 집 밖에서 냉, 난방기기를 작동시키거나 비디오킨 수도 있게 된다. TV 한 대로 양방향 멀티통신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IEEE1394관과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각각의 홈네트워킹 기술을 적용,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TV~DVD플레이어~오디오~화상전화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전시했다.

또한 파나소닉은 새로운 메뉴와 조리법을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 각종 가전제품을 통합해 설치한 미래 가정(Next Home)을 홈네트워킹관에 설치해 갈채를 받았다. 네트워킹이 구축된 미래 가정에서는 각종 가전제품과 멀티미디어 기기를 서로 연결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학교와 공공기관 및 의료시설 등으로도 사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선마이크로시스템도 「더닷컴홈(The D.Com Home)」이라는 이름으로 시스코~소니~필립스~샤프~GTE~비자~캐논 등 수많은 가전업체와 공동으로 홈네트워킹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 블루투스

휴대형 기기간의 무선접속기술인 블루투스(Bluetooth)도 적외선 기술을 적용한 IRDA의 다음주자로서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블루투스 컨소시엄 참가업체인 에이스, 에릭슨, IBM, 인텔, 루슨트, 모토롤라, 노키아, 필립스, 지멘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쓰리콤 등이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두루 선보여 블루투스가 업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중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블루투스 기술을 적용하면 휴대폰과 같은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와 PDA, 노트북PC, MP3 플레이어, 디지털 캠코더, TV, 오디오, 비디오 등 간에 정보교환이 손쉬워져 모든 가전제품에 무선 인터넷 접속 장치를 내장하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기타 접속 장비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메모리카드

삼성전자의 스마트미디어 및 소니의 메모리스틱, 샌디스크와 도시바~마쯔시타 3개사 연합의 SD카드 등이 벌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경쟁도 불만했다.

이번 전시회만 봐서는 SD카드 진영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비춰졌다.

삼성전자와 소니는 폐쇄된 공간인 미팅룸에 전시장을 마련, 바이어 상담에 주력한 반면 SD카드 진영에서는 샌디스크와 도시바가

SD카드 생산을 맡고 마쯔시타는 파나소닉 브랜드로 이를 이용한 다양한 휴대용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전자레인지 등 획기적인 제품들을 전시, 활용성을 자랑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진영은 특히 이미 이 진영에 가세한 업체들이 7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안에 100개 업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참여업체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소니도 끼어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SD카드는 아직 상품화되지 못한 상태인데다 오는 3사분기에나 양산될 것으로 보여 결과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라디오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라디오 기술이 다수 전시돼 오디오 시장의 미래를 예시했다. 디지털 라디오관에서는 알파인, 클라리온, 텔코, 파이오니어 등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디지털라디오 사업체들의 컨소시엄인 USADR은 홈리시버를 쉐우드 부스에 전시하고 제품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리우스 새틀라이트 라디오는 50~60 채널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시연회를 가졌다.